

각종 의혹과 고소·고발에 휩싸이고 있는 장성농협

잇따른 정관변경 시도에 내부 고발 사태
 농협앞에서는 조합원 무기한 농성 이어가

장성읍에 소재한 장성농협이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말도 많고 탈도 많다

농협 정관변경을 2회 실시했으나 실패하고 또다시 시도 할 것으로 보이며 농협감사와 이사가 다툼이 일어나 서로 고소 고발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농협앞에서 조합원이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본지가 지난해 11월 11일 장성농협 임직원 이 타지역(광주광역시) 회관에서 1차 장어집과 2차 7080 유흥주점에서 흥청망청 과다지출 논란으로 기사화로 인하여 농협 감사가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영수증을 제출 하라고 했으나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어 무슨 핑수를 부리는지 의문이 점점 커져 가고 있다.

장성농협 협동조합 정관 제2조 목적에는 우리조합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여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

상시키를 목적으로 한다 하면서 장성농협 하나로 마트는 장성군에서 생산된 사과, 감, 쌀, 야채, 등을 판매하지 않고 있어 장성농협 조합원과 장성군 농민들이 불만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또한 앞서 집회했던 퇴비 공장 법인 관계자에 따르면, 퇴비 공장 임대 계약 당시 농협측의 불합리한 계약과 법인측에서 요구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계약 연장을 하기 위해 집회를 하고 있다는 농협측 관계자의 말로 인해 타협이 아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장성농협 조합원 김모씨는 “현재 2,863명의 조합원과 85명의 대의원, 그리고 13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되어 있다. 대의원과 조합원들 다수가 박조합장의 연임을 반대하고, 대다수 대의원들마저 극렬하게 거부감을 표명, 정관개정이 매우 어렵게도 불구하고 농협직원들까지 동원해 정관 변경운동을 일삼고 있는 행위는 마땅히 지탄받아야 한다”며 “36년 농협직원 14년 조합장이면



충분하다. 이마저도 너무 오래 한 것”이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이러 대의원 조모씨는 “정관변경이 이루어져 박조합장이 비상임 조합장으로 출마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부정, 부패를 했던 일을 무사히 지나가려 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새로운 조합장이 당선되

면 이런 일들이 알려질까 두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재 지금 박조합장 출마를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출마 예정자 이모씨를 박조합장이 밀어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편 농협비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각종 횡령과 비리가 꼬리표처럼 달려왔다. 지난 1999년에 대검 중수부가 밝힌 전국 농·

축·임·인삼협 수사결과에 따르면, 각종 비리에 연루된 861명이 입건됐고 287명은 구속됐다. 일반범죄 사건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입건 구속자 수를 기록했으며, 당시 농협중앙회장도 구속됐다.

기동취재본부

전남도, 테슬라 유치 제안...해남군 “환영, 모든 지원 아끼지 않겠다”

RE100 전용 단지 조성 등 솔라시도 최적 후보지

해남군은 8일 전남도의 테슬라 기가팩토리 제2공장 유치와 관련,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고 도민의 역할을 결집시키는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지난해 11월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화상면담을 통해 아시아에 추가 생산공장 설립 의사를 밝히면서 테슬라 아시아2공장 국내 유치전이 시작된 가운데 전남도에서도 지난 5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투자유치 제안서를 제출했다.

해남군은 우수한 입지 조건을 내세운 테슬라 제2공장의 전남 유치에 적극 공감을 표하면

서 군 차원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명현관 군수는 “테슬라 유치까지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한국, 특히 전남에 유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 과제인 만큼 전남도와 시군 지자체들이 한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 전체의 미래를 바꿀 역사적 기회만큼 도내 경쟁보다는 대승적 자세로 전라남도 유치라는 큰 목표야래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역할을 결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내는 물론 아시아 각국의 유치전이 치열한 가운데 풍부한 신재생 에너지 자원을 갖추고, 안전하고 저렴한 산업단지가 풍부한 전남은 이번 투자유치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특히 해남군 산이면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산단내 사용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100% 공급하는 RE100 전용 산업단지 조성 가능한 후보지로 주목받고 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에는 지난 2020년 태양광 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국내 최대 규모 159만여㎡(48만여평)면적, 98MW 규모의 재생에너지 산업단지가 조성됐다.

전남도에서는 인근 부동지구 일원에 1GW급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 이 곳에서 생산되

는 전력을 RE100 전용산단이 있는 구성지구로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와 연계한 전력공급망을 확충하고, 해남군 화원면 일원을 해상풍력 배후 산업단지 개발로 계획으로 친환경 에너지의 최대 공급처로서 글로벌 기업의 RE100 실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입지라는 점이 큰 매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 신정부의 탄소중립 클러스터와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단지 및 발전단지 조성계획이 국정과제로 채택돼 국비와 민간투자 등으로 2조 3000억원을 투입해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이러한 국내외의 관심을 반영하듯 지난해 9월에는 김영록 도지사와 명현관 군수가 미국을 방문, 2조 6000억원 규모의 RE100 글로벌데이

터센터 건립 투자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한 기업도시내에 100~130만㎡에 이르는 부지가 이미 확보돼 있어 2024년 적기 착공이 가능하고, 연간 30만대 자동차를 선적할 수 있는 목포 신항만 자동차 전용부두와도 가까워 사업 추진에 장애가 없다는 점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전라남도 블루이코노미의 일환인 전남형 스마트블루 시티 개발로 각종 투자유치가 밀려 들고 있는 가운데 이번 테슬라 기가팩토리 입지 후보지로 부상하면서 글로벌 투자처로서 위상을 높이고 있다.

해남군은 전라남도 투자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부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부서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행정 지원을 포함한 모든 역할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 좀 가게 응급차 좀 불러줘요”

“지갑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줘요”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국민 정재홍·서관우·조윤영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